



ISLAND ADVENTURE

SCENARIO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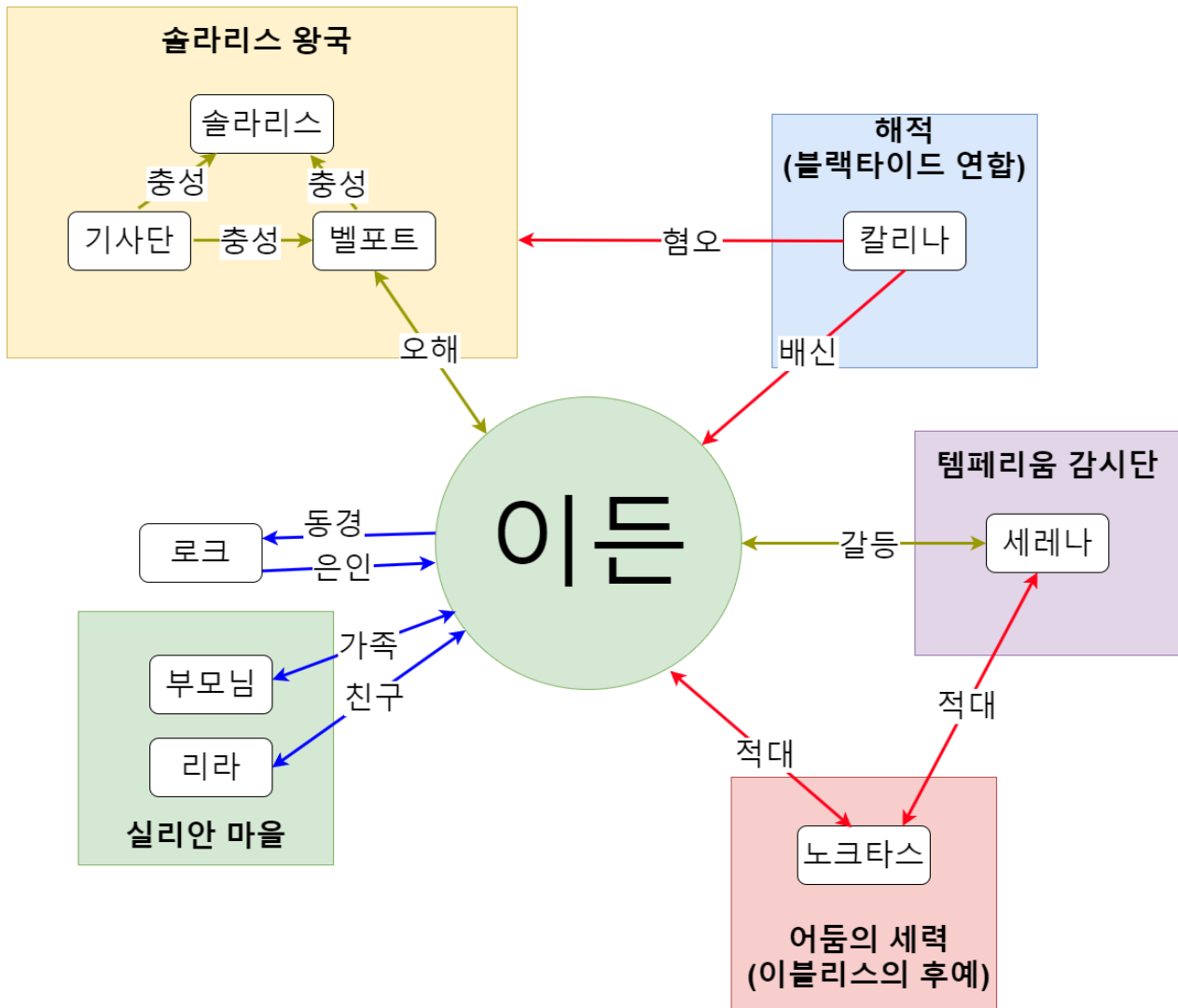
업데이트 내역.....	4
1. 갈등 구조.....	5
2. 액트 1: 고요한 마을	6
2.1.1 챕터 1: 실리안 마을의 평온한 나날	6
썬 1: 아침 식사	6
썬 2: 마을 거리	6
썬 3: 마을 끝자락	6
2.1.2 챕터 2: 숲에서의 만남	7
썬 1: 실리안 숲	7
썬 2: 기묘한 발견	7
2.1.3 챕터 3: 노인의 이야기	8
썬 1: 이든의 집	8
썬 2: 며칠 동안의 간병	8
썬 3: 로크의 이야기	8
2.1.4 챕터 4: 헤어짐	10
썬 1: 아침, 실리안 마을 입구.....	10
2.2 액트 2: 선택과 성장.....	11
2.2.1 챕터 1: 이든의 선택.....	11
썬 1: 흔들리는 마음	11
썬 2: 매일 밤, 언덕	11
썬 3: 가족들과의 대화	11
2.2.2 챕터 2: 이든의 성장.....	13
썬 1: 준비와 출발	13
썬 2: 숲속 깊은 곳으로	13
썬 3: 훈련.....	13
썬 4: 회색 늑대와와의 전투	14
2.2.3 챕터 3: 작별.....	15
썬 1: 가족과의 재회.....	15
썬 2: 가족과의 저녁식사.....	15

썬 3: 리라와의 작별.....	16
2.3 액트 3: 새로운 시작.....	18
2.3.1 챕터 1: 모험의 시작.....	18
썬 1: 망망대해	18
썬 2: 의문의 섬	18

업데이트 내역

날짜	내용	작성자
2025-03-05	첫 시나리오 작업	양진규
2025-03-10	시나리오 수정 작업	양진규
2025-03-11	시나리오 수정 작업	양진규

1. 갈등 구조



1. 이든: 전설속의 섬 "엘디시아"를 찾으려 모험을 하는 주인공.
2. 록: 의문의 노인(오랜 세월 동안 전설의 섬을 찾는다.)
3. 리라: 이든의 소꿉친구(이든의 모험을 응원한다.)
4. 벨포트: 왕국의 기사 단장(국왕에게 충성하며 명령을 따름)
5. 칼리나: 자유분방하며 거래와 배신을 자유롭게 하는 여해적.
6. 노크타스: 전설적인 섬의 힘을 얻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어둠의 세력의 수장.
7. 세레나: 전설적인 섬이 발견되는 것을 막는 감시단의 수장.

2. 액트 1: 고요한 마을

2.1.1 챕터 1: 실리안 마을의 평온한 나날

씬 1: 아침 식사

(부엌.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나무 탁자 위에 빵과 수프가 놓여 있다. 이든의 어머니가 국자를 들고 수프를 떠주고 있다. 아버지는 조용히 빵을 뜯어먹는다.)

어머니: (부르럽게) "이든 오늘은 뭘 할 거니?"

이든: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숲에 가서 사냥을 할 거예요. 고기가 부족하잖아요."

아버지: (고개를 끄덕이며) "활을 조심히 다루거라 요즘 산짐승이 많다."

(이든은 씹 웃으며 활을 집어 든다. 활줄을 당겨보며 상태를 확인한다.)

이든: "걱정 마세요. 항상 하던 일이잖아요"

씬 2: 마을 거리

(이든이 마을을 걸어간다. 마을 주민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바쁘게 움직인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고 대장간에서는 불꽃이 튀며 대장장이가 망치를 두드린다. 어린아이들이 들판에서 뛰놀고 있다.)

마을 사람 1: (웃으며) "이든 오늘도 사냥 나가는 거냐?"

이든: (활을 가볍게 들어 보이며) "네 저녁거리를 좀 잡아와야죠"

(마을 한가운데 우물가. 리라가 물을 뜨고 있다. 이든을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든다.)

리라: "이든! 오늘도 숲에 가는 거야?"

이든: (고개를 끄덕이며) "응 같이 갈래?"

리라: (장난스러운 미소) "당연하지! 널 혼자 두면 또 위험한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아서 말이야."

씬 3: 마을 끝자락

(이든과 리라는 숲으로 향한다. 숲으로 향하는 동안 리라는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간다.)

리라: (신나서) "그래서 말이야, 어제 마을에서 누가 염소를 잃어버렸 대. 근데 있잖아, 내가 보기엔 산짐승이 가져간 게 아닐 수도 있거든? 마을에 이상한 일이 많아졌어! 그리고 너, 어제 저녁에 엄청 졸려 보였잖아. 제대로 잔 거 맞아?"

이든: (낮은 목소리) "췌 이제부터는 주위를 살펴야해"

2.1.2 챕터 2: 숲에서의 만남

씬 1: 실리안 숲

(숲으로 들어가자 울창한 나무들이 빛을 가리고 곳곳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며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린다.)

리라: (활기차게) "이든 넌 매번 여기 올 때마다 그렇게 진지해야 해? 좀 여유를 가져봐!"

이든: (웃으며) "사냥할 때는 집중해야지. 너처럼 계속 떠들면서 하면 짐승들이 다 도망간다고."

리라: (장난스럽게) "그래? 그런데 난 이상하게도 네가 사냥할 때마다 따라가는데도 우리가 굶어 죽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든은 피식 웃으며 활줄을 조정한다. 리라는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보며 말을 이어간다.)

리라: "그나저나 어제 마을에서 잃어버린 염소 있잖아. 단순한 짐승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든: (심드렁하게) "또 마을의 이상한 소문이야?"

리라: (으스스한 표정으로) "진짜라니 깐! 마을 어른들이 말하길 밤마다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데."

씬 2: 기묘한 발견

(한 줄기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새어 나오고 그 아래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

(이든과 리라는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 옷은 찢어져 있고 먼지가 가득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나침반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리라: (작은 목소리로) "...이든 저 사람... 살아 있는 거야?"

이든: (노인의 어깨를 흔들며) "이봐요 괜찮으세요?"

이든: (안도하며) "숨은 쉬고 있어 하지만 상태가 안 좋아 보여."

리라: (주위를 둘러보며) "근데... 이상하지 않아? 여긴 마을 사람들도 잘 안 오는 깊은 곳이야 저 사람이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이든: (심각한 표정)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두면 위험해."

(이든은 노인의 한쪽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일으키려 한다 그러나 노인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다.)

이든: "리라 나 좀 도와줘."

(리라는 한숨을 쉬며 도와 노인을 부축한다.)

리라: (힘주며) "너... 진짜 나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할 생각이야?"

이든: (진지하게) "우리가 안 도우면 이 사람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

리라: "알았어, 알았어 마을까지 조심히 가자."

2.1.3 챕터 3: 노인의 이야기

씬 1: 이든의 집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두 손을 맞잡고 있다.)

어머니: (걱정스럽게) "이든아... 우리가 이분을 돌봐야 하는 걸까? 정체도 모르는 분인데..."

아버지: (무겁게) "마을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낯선 외지인이야. 게다가 이렇게 깊은 숲에서 발견됐다고? 확실히 이상하지 않나?"

이든: (단호한 표정) "하지만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분은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망설이면서도 이든의 눈빛을 보고 조용히 한숨을 쉰다. 아버지는 깊이 생각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우리가 돌봐보자. 하지만 경계는 늦추지 말아라."

어머니: (부드러운 미소) "그래 아버지 말씀대로 조심은 해야겠지만... 사람을 돕는 건 마땅한 일이니까."

씬 2: 며칠 동안의 간병

리라: (속삭이며) "이든 이 사람 언제쯤 깨어날까?"

이든: (한숨) "모르겠어 하지만 숨은 쉬고 있어. 기운을 차릴 거야"

(노인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눈을 깜빡인다. 그의 시선이 흐릿하게 방 안을 훑는다.)

로크: (거친 목소리) "...여긴...어디지?"

이든: (재빨리 다가가며) "정신이 드세요?"

어머니: (걱정스럽게)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몇시간이 지나고 로크는 기운을 차리게 되었다.)

씬 3: 로크의 이야기

(로크는 이든과 부모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다. 부모님은 너무 놀랐고 이든도 다른 의미로 놀랐다.)

이든: (호기심 어린 눈빛) "정말 탐험가세요?"

로크: (미소를 지으며) "그래 그렇지."

리라: "지금도요?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데 은퇴한 게 아니었어요?"

로크: (미소를 짓지만 눈빛이 빛난다) "은퇴? 탐험가에게 그런 단어는 없지. 나는 여전히 길을 찾고 있단다 이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떠날 거야."

이든: (흥분하며) "그럼 엘디시아도 찾으러 가신 건가요?"

로크: "그렇다 그리고 아직도 찾고 있지."

로크: "수많은 바다를 건너고 셀 수 없는 섬을 탐험했지만 아직 엘디시아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 섬이 전설이든, 실재하든, 내 발로 직접 확인할 거니까."

이든: (흥분하며) "그럼 다른 모험 이야기는 없어요? 탐험하면서 겪었던 일들이요!"

로크: (낮고 깊은 목소리) "좋아 너처럼 호기심 넘치는 청년이라면 들려줄 만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

(이든과 리라는 밤새 로크의 모험 이야기를 들었다.)

2.1.4 챕터 4: 헤어짐

씬 1: 아침, 실리안 마을 입구

(로크가 마을에 온지 한달 정도 지났다. 건강이 회복된 로크는 아침 일찍 떠날 준비를 한다.)

이든: (조용히)“정말 떠나는 거예요?”

로크: (웃으며)“그렇다네, 탐험가는 한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지.”

(이든은 살짝 시선을 돌린다. 그는 아직 무언가를 말할지 고민하는 듯하다. 리라는 씩 웃으며 한 발 앞으로 나선다.)

리라: “이든이 말은 안 해도 아쉬워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요.”

(로크는 가볍게 웃으며 이든의 어깨를 두드린다.)

로크: “소년, 덕분에 난 한 달 동안 몸을 추스를 수 있었어. 너와 네 가족에게 정말 고맙다.”

(로크는 주머니에서 낡은 나침반을 꺼내 이든에게 건넨다.)

로크: “이건 네가 가져라.”

이든: (당황하며)“이건... 탐험가님께 중요한 거잖아요.”

로크: (미소를 지으며)“그래서 네가 자져야 해. 난 이 나침반이 없이도 길을 찾을 수 있지만... 넌 아직 길을 찾는 중이지 않니?”

로크: “언젠가, 세상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군. 그때는 네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궁금할 거야.”

(로크는 이든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손을 흔든다. 마차가 천천히 움직이며 먼지를 일으키고 마을을 떠난다.)

2.2 액트 2: 선택과 성장

2.2.1 챕터 1: 이든의 선택

씬 1: 흔들리는 마음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로크가 떠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그의 머리 속은 여전히 그 순간에 멈춰 있다.)

(한 농부가 곡식을 나르다가 이든을 보고 말을 건다.)

마을 사람: (웃으며)“이든,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냐?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지 않겠냐?”

(이든은 흠칫 놀라며 정신을 차린다. 그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일을 도우려 하지만 마음은 온통 딴 곳에 가 있다.)

(그가 곡식을 옮기려다가 손에서 실수로 떨어뜨린다.)

마을 사람: (당황하며)“괜찮냐, 이든?”

이든: (멋쩍게)“아, 네...죄송해요.”

(이든은 허둥지둥 곡식을 줍는다. 한숨을 내쉬고 허리를 펴며 손에 쥐고 있던 나침반을 다시 바라본다.)

씬 2: 매일 밤, 언덕

(노을이 지고, 실리안 마을이 어둠 속으로 서서히 잠긴다. 언덕 위, 이든은 혼자 앉아 나침반을 바라본다.)

이든: (속삭이며)“...떠나야 할까? 남아 있어야 할까.”

(이든은 나침반을 단단히 쥐고 숨을 길게 내쉰다. 그는 여전히 망설인다.)

(그의 고민은 며칠 동안 반복된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번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린 표정으로 마을을 향해 걸어 내려간다.)

씬 3: 가족들과의 대화

(따뜻한 촛불이 빛나는 집 안, 이든의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어머니: (이든을 보며)“이든아, 요즘 왜 그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마을 일에도 집중 못하고...”

아버지: (단호하게)“맞다. 무슨 고민이 있는 거냐?”

(이든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 놓고, 두 손을 주먹 쥔 채 입을 열었다.)

이든: (단호하게)“...전 떠나려고 해요.”

어머니: (놀란 목소리)“떠나다니...어디로?”

이든: “세상을 보고 싶어요. 로크 탐험가님이 말했던 것처럼, 직접 길을 나서서 저 너머가 어떤 곳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팔짱을 낀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다.)

아버지: (무겁게) “네가 그런 결정을 내릴 줄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아버지: “너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마을 밖의 위험을 직접 겪어 본 적이 없다. 그걸 알고도 떠날 수 있겠느냐?”

이든: “네. 그래서 전 여기서 수련할 거예요. 마을을 떠날 준비가 될 때까지, 더 강해질 거예요.”

아버지: (미소 지으며) “그래, 네가 진심이라면 막지 않겠다. 하지만 약속해라. 무작정 떠나지 말고, 충분한 준비를 마친 후에 떠나라.”

(이든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2.2.2 챕터 2: 이든의 성장

씬 1: 준비와 출발

(새벽이 밝아오고, 실리안 마을은 아직 고요하다. 테이블 위에는 사냥용 활, 잘 정비된 검, 그리고 사냥 장비들이 놓여 있다.)

어머니: (부드럽게) "이든, 준비 다 됐니?"

이든: (고개를 끄덕이며) "네, 준비 다 됐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단호하게) "네가 이 결정을 했으니, 가서 끝까지 해내라. 하지만 무모하게 행동하지 마라. 숲속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험난할 수도 있다."

이든: (단단한 표정으로) "알아요, 아버지. 전 이곳을 떠나기 전에 더 강해질 겁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도 살며시 미소를 짓는다. 그녀는 작은 천에 싼 약초와 말린 고기를 건넨다.)

어머니: "이걸 가져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든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 챙긴다. 그는 부모님께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 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다.)

씬 2: 숲속 깊은 곳으로

(햇살이 서서히 떠오르며 숲속으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든다.)

이든: (속삭이며) "이곳이라면... 나를 단련하기에 충분하겠지."

(그는 숲속 깊숙이 있는 오래된 바위와 나무들로 둘러싸인 넓은 공터에 도착한다.)

이든: "좋아. 이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겠어."

씬 3: 훈련

(이든은 숲속에서 혼자 살아남는 법을 익혀야 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불을 피우는 방법을 연습했다. 돌을 부딪쳐 불씨를 만드는 데 익숙해졌고, 작은 덩을 놓아 토끼를 잡는 법도 익혔다.)

이든: (자신에게 중얼거리며)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졌어... 하지만 아직 멀었어."

(이든은 자신의 검을 꺼내고 조용히 숨을 고른다.)

이든: (속삭이며) "더 빨라야 해. 더 강해야 해."

(그는 천천히 검을 빼어 들고, 허공을 가르며 연습하기 시작한다. 한번, 두 번, 점점 검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진다.)

(화살이 정확히 나무 중앙에 박힌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는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쏘기 위해 반복적으로 연습한다.)

이든: (숨을 몰아쉬며) "조금 더... 더 정교하게."

씬 4: 회색 늑대와 전투

(숲에 들어 온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든은 그날도 수련을 마치고 천막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온다. 그와 함께 묘한 위화감이 스쳐간다.)

(풀숲 너머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나는 눈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회색 늑대 무리. 여섯 마리의 늑대들이 포위하듯 조용히 접근하고 있다.)

(이든은 빠르게 허리춤에서 검을 뽑는다.)

이든: (속삭이며) "그렇지... 이대로라면 완전히 포위당하겠군."

(한 마리가 갑자기 포효하며 점프해 날아든다! 이든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피하며 검을 옆으로 휘두른다! 늑대는 가까스로 몸을 비틀어 피했지만, 검날이 허벅지를 스치며 얇은 상처를 남긴다.)

(늑대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자, 다른 늑대들이 더욱 거세게 반응한다. 포위망을 좁혀오며 사냥감을 잡으려는 듯 천천히 움직인다.)

이든: (속삭이며) "이대로라면... 한 마리씩 상대해야겠어."

(그는 재빨리 활을 꺼내고, 화살을 장전한 채 빠르게 한 발을 발사한다. 화살이 가장 가까이 있던 늑대의 앞다리에 정확히 명중한다! 늑대는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고 뒹굴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으로 이든을 노린다.)

(나머지 늑대들은 더욱 흥분하여 한꺼번에 달려든다! 이든은 순식간에 활을 내려놓고 검을 양손으로 단단히 쥔다. 바닥을 힘껏 박차며 한 늑대의 공격을 피한 후, 회전하며 검을 휘둘러 또 다른 늑대의 어깨를 베어낸다.)

(늑대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피를 흘리지만, 나머지 늑대들은 멈추지 않는다. 한 마리가 이든의 뒤에서 빠르게 점프해 그를 덮치려 한다!)

(이든은 직감적으로 몸을 돌려 검으로 늑대의 공격을 막는다. 늑대의 발톱이 검날과 부딪히며 불꽃이 튀고, 그는 온 힘을 다해 늑대를 밀어낸다. 늑대는 땅에 나뒹굴지만, 여전히 싸울 기세다.)

(숨이 거칠어지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린다. 늑대들은 여전히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든은 주위를 빠르게 살핀다. 남아 있는 늑대는 네 마리. 그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한 손으로 검을 다시 쥐고, 다른 손으로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낸다.)

이든: (작게 웃으며) "이제 내 차례다."

(그는 급습한다. 자신이 늑대들에게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늑대들을 몰아세우듯 움직인다. 그의 검은 번개처럼 움직이며, 한 마리씩 늑대들을 몰아낸다.)

(그가 단검을 던지자, 한 늑대의 발치에 꽂히며 그것이 움찔한다. 바로 그 순간, 이든은 검을 휘둘러 늑대의 등을 강하게 내려친다. 늑대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도망치려 한다.)

(나머지 늑대들은 이든의 기세에 밀려 서서히 뒤로 물러난다. 그리고 결국, 남아 있던 늑대들은 싸움을 포기하고 숲속으로 도망친다.)

(이든은 헉헉거리며 허리를 숙여 손으로 무릎을 짚는다. 온몸이 상처로 가득 차 있었고, 피로가 몰려온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챙겨 났던 약초를 몸에 바르고 응급처치를 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 이든은 더 강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때의 어린 소년이 아니다. 그는 숲에서 살아남았고, 수많은 수련을 거듭하며 스스로를 단련했다.)

(그는 이제 늑대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 그의 몸은 단단해졌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다. 전투 기술도 한층 정교해졌으며, 검과 활을 자유롭게 다룬다.)

(이든은 마지막으로 나침반을 꺼내 든다. 이제 더 이상 그 바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길을 정했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숲의 나무를 바라본다.)

이든: (나지막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됐군."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허리춤에 검을 차고, 활을 등에 멘다. 그리고 실리안 마을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다.)

2.2.3 챕터 3: 작별

씬 1: 가족과의 재회

(이든이 집 앞에 도착하자, 마당에서 어머니가 채소를 다듬고 있다. 한순간 멈칫하던 그녀는 고개를 들어 문 앞에 서 있는 낯익지만 한층 성장한 아들을 발견한다. 그녀의 눈이 커진다.)

어머니: (놀라며) "이든...?"

(이든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니는 한순간 말을 잊지 못하다가, 이내 그를 끌어안는다.)

어머니: "정말... 돌아왔구나."

(그녀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핀다. 떠나기 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몸, 날카로워진 눈빛. 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그때, 집 안에서 아버지가 나온다. 그는 손에 연장을 들고 있다가 멈춰 서서 이든을 바라본다.)

아버지: (짧게) "그래, 왔구나."

(이든은 가볍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

이든: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의 침묵 속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도 크다.)

씬 2: 가족과의 저녁식사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는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이 놓여 있다. 어머니는 떠난 아들이 돌아왔다는 기쁨에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

(이든은 오랜만에 따뜻한 집밥을 음미하며 조용히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하지만, 그는 곧 해야 할 말을 떠올리며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이든: (조심스럽게) "아버지, 어머니... 저 내일부터 떠날 겁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진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고 멈추고, 아버지는 조용히 이든을 바라본다.)

어머니: (살짝 떨리는 목소리) "이든아... 그렇게 빨리 떠나야 하니?"

(이든은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이든: "2년 동안 수련하면서 깨달았어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제 길을 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한참을 이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낸다.)

아버지: "그래, 너의 눈을 보니 결심이 선 것 같구나."

(그는 천천히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덤덤하게 말을 이어간다.)

아버지: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마을과는 다르다. 네가 아무리 강해졌다고 해도, 더 강한 상대가 있고, 더 험한 길이 있을 거다."

이든: (단호하게) "알아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됐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결국 이든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보자기를 들고 온다.)

어머니: "이건 네가 떠날 때 필요할 거야. 몸은 항상 따뜻하게, 먹을 것도 잊지 말고."

(이든은 그것을 받아 꼭 쥔다.)

이든: (진심을 담아) "고마워요, 어머니."

씬 3: 리라와의 작별

(이든은 항구에서 배에 오르기 전, 한동안 바다를 바라본다. 잔잔한 물결이 부서지고, 차가운 새벽 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흔든다. 이제 출항할 시간이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온다. 이든이 돌아보자, 리라가 서 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온다. 2년 동안 그녀도 성장했다. 더 단단해진 표정, 허리에는 작은 단검이 매여 있다.)

리라: (가볍게 웃으며) "너 정말 떠나는구나."

이든: (고개를 끄덕이며) "응.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리라는 잠시 아무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민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부적이 쥐어져 있다.)

리라: "이거 가져가. 행운을 가져다줄 거야."

(이든은 부적을 받아 조심스럽게 손안에 쥔다. 작은 돌에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그는 그것을 내

려다보다가, 리라를 향해 미소 짓는다.)

이든: "고마워, 리라."

리라: (조금 장난스럽게) "약속해. 무사히 돌아온다고."

이든: (단호하게) "약속할게."

(이든은 마지막으로 마을을 뒤돌아본다. 가족, 친구, 그리고 그가 살아온 모든 것이 있는 곳.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길을 나아가야 한다.)

(그는 배에 오른다. 그리고 천천히 떠나는 배를 바라보는 리라의 모습이 점점 멀어진다.)

2.3 액트 3: 새로운 시작

2.3.1 챕터 1: 모험의 시작

씬 1: 망망대해

(이든의 배는 끝없는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 하늘은 푸르고, 햇살이 물 위에 반짝인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며 돛을 부드럽게 흔든다.)

(그는 나침반을 꺼내어 확인한다. 바늘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는다.)

이든: (속삭이며) "이제 정말 시작이군."

(그는 돛줄을 단단히 묶고, 앞으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손에 힘을 준다. 새로운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바람이 점차 거칠어지기 시작한다. 바다는 점점 어두워지고,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온다.)

(이든은 표정을 굳히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이든: (낮은 목소리) "...좋지 않은데."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배가 흔들린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며,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친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폭우가 쏟아진다. 파도는 거칠게 치솟아 배를 뒤흔든다. 이든은 필사적으로 돛대를 잡고 배를 조종하려 한다.)

이든: (외치며) "버텨야 해!"

(하지만, 거대한 파도가 배를 삼켰다. 그의 시야는 검게 변했다.)

씬 2: 의문의 섬

(내리 쏘는 태양, 해안가에 쓰러진 이든. 그의 손가락이 살짝 움찔한다. 이내 눈꺼풀이 떨리며, 그는 천천히 눈을 뜬다. 시야가 흐릿하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한참 동안 가쁜 숨을 몰아쉰다.)

이든: (숨을 몰아쉬며) "...젠장...."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킨다. 땅을 짚고 일어나 앉으며, 자신의 몸을 빠르게 점검한다. 팔, 다리— 부상은 크지 않다. 다행이었다. 하지만 피로가 몰려온다. 그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주변을 둘러본다.)

이든: (작게) "...살아남긴 했군."

(그의 시선이 해변을 따라가다 난파된 배의 잔해들에 닿는다. 깨진 판자들, 부서진 노, 물에 젖은 밧줄들이 널려 있다. 그곳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찾아야 한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휘청이며 발걸음을 떼다. 그는 난파된 배의 남은 잔해들 사이를 헤치며, 자신이 가져온 물건들을 찾기 시작한다.)

(조금 떨어진 곳, 그의 활과 화살통이 모래에 반쯤 파묻혀 있다. 그는 그것을 집어 들어 확인한 후, 허리에 다시 단단히 맨다.)

이든: (중얼거리며) "다행이야... 화살은 몇 개 남아 있군."

(조금 더 걷자, 검이 바위 틈에 걸쳐져 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 들고, 날을 확인한 후 다시 허리에 찬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머니를 뒤져 나침반을 꺼낸다. 하지만 나침반의 바늘은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다. 방향을 제대로 가리키지 않는다.)

이든: (조용히) "대체... 무슨 일이지?"

(그의 눈이 섬의 깊은 곳을 향한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고, 거대한 나무들이 우거진 숲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허리에 찬 검을 단단히 쥜다. 그리고 결심한 듯 섬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다.)